



케익 하우스 인

공간활용 극대화한 화이트 이미지  
녹번동



◀카운터에서 바라본 매장전경. 화이트톤을 주조색으로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연무늬 목의 빵디스플레이대가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매장 좌측에 위치한 쇼케이스. 화이트 쇼케이스가 이곳의 주조색인 화이트와 통일감을 주고 있으며 자칫 단순한 이미지에 등근곡선이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뒷부분에는 선반을 설치하여 상자등을 보관하는 공간활용을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선물용 케이크, 쇼트케이크를 진열 제품을 분류하고 있다.

▶▶케익하우스 인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바게트 진열대 뒤에 있는 냉장쇼케이스. 대부분의 제과점이 진열하는 쇼트케이크는 쇼케이스에 진열하고 이곳에서는 다양한 샌드위치를 진열하고 있다. 또한 냉장쇼케이스의 1/3 부분에는 선반을 두어 도우넛을 진열하는 등 제품분류를 해 공간확대를 꾀하고 있다.



▲입구에서 바라본 매장전경. 냉장쇼케이스를 중심으로 빵디스플레이대와 쇼케이스를 배치하여 고객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공장과 매장 사이의 카운터에는 식빵류를 진열했으며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의 포장은 물론 수납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입구 왼쪽에 배치한 하드롤 진열대. 하교길 어린이들도 즐겨 사먹을 정도로 인기있는 이곳의 하드롤이다. 간단한 탁자에 깔라플한 테이블보로 아무렇지 않게 꾸민 진열대가 하드롤을 더욱 꾸성하게 보이게 한다.

▶공장내부의 수납공간에 설치한 블라인드. 공장일손이 바빠 보면 수납형태가 흐트러지기 쉽다. 이럴 때 화이트 블라인더를 내려 살짝 가려주는 것도 애교있는 일.

◀ 케익하우스 인의 외관. 쓸데없는 장식을 배제하고 단순한 디자인과 깨끗한 색상으로 고객의 시선을 유도하고 있는 외관이다. 화이트색을 주조색에 빨강색의 로고가 깨끗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시키고 있다.

케익하우스 인(대표 임중모)은 녹번역에서 신사동 방향으로 나오는 출구에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전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포함하는 등 바로 옆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제과점으로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케익하우스 인은 별도의 공장을 갖춘 소규모 점포이다. 소규모 점포의 한계는 어떻게 공간활용을 하느냐에 있다. 이런 점에서 케익하우스 인은 공간활용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한 인테리어를 실현한 곳이다. 매장면적에 비해 많은 제품을 수용하기 위해 매장의 합리적인 배열이 우선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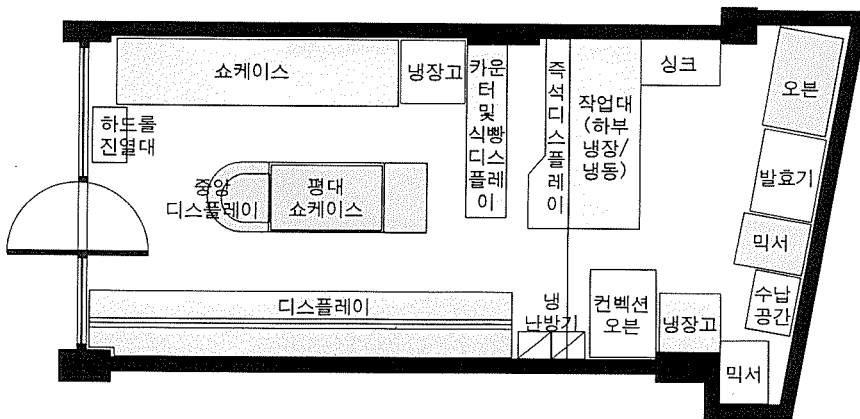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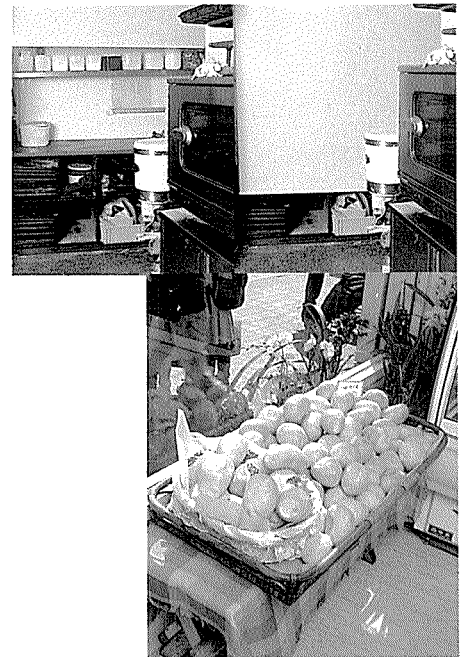
또한 매장의 전면이 좁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우므로 이곳의 인테리어 컨셉은 복잡함보다 단순하고 깨끗한 디자인으로 접근하여 고객의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을 주조색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진열대와 선반을 자연무늬목으로 처리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주도록 했다.

약 7평의 매장에는 중앙 냉장쇼케이스를 중심으로 우측으로 빵디스플레이대를, 좌측에는 쇼케이스를 배치해 제품진열을 분류하여 공간활용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좁은 공간활용을 위해 벽면식 쇼케이스에는 선물용 케이크류와 쇼트케이크를 진열했으며 평대쇼케이스에는 다양한 샌드위치를 진열했다. 또한 평대쇼케이스 1/3가량은 도우넛을 진열해 진열공간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공장과 매장 중간부분에 카운터를 배치하고 제품포장은 물론 수납장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픈한 공장의 내부 수납공간에는 블라인더를 설치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주도록 했다.

내부와 동일하게 외부도 화이트색을 주조색으로 로고를 빨강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투광등으로 외부 이미지를 돋보이도록 했다.



· 주소: 은평구 녹번동 268번지 · 면적: 12평(매장 7평) · 마감재: 바닥/테코타일, 벽/석고보드위 드라이비트, 천정/석고보드위 V.P도장, 간판/갈바 스티프 스카시  
 <설계 및 시공: 피드종합디자인연구소>